



#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당세포의 위치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정은

## 전 당 강화의 첫 걸음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제4차 세보시대대회가 진행되며부터 2년이 흘렀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보시대회는 당세포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전당을 강화하며 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간다는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인 대회였다.

당창건 일흔을 맞은 올해에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비강화하면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는데 큰 장애를 놓아야 한다. 당세포만 강화하면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이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볼 일이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당세포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조직들의 유기적 결합체이며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은 당세포이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있는 세포가 튼튼하고 작용을 원만히 하여야 사람이 건강한것처럼 당을 구성하고야야 당세포가 견고하고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당이 강해진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것은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선차적

요구이다. 당대렬이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되지 못한 당은 오합지졸에 불과하며 그러한 당은 자기의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다.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는 당의 기초조직인 당세포의 강화를 통하여 실현된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우리 당의 말단기초조직이다. 당원들은 직무와 경력, 품위와 연회에 관계없이 누구나 당세포에 소속되어 당생활을 한다. 당원들은 조직사상생활을 통하여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으로 무장하고 당과 조국,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신병화하며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을 지닌 참다운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왔기 때문이다. 모든 당세포들을에서 혁명적수령관을 기초한 당생활기능을 철저히 세워 당원들을 역세게 키워내야 할 때 우리 당은 그 어떤 천지조공에서도 그럭저럭 않는 당으로 거듭나야 강화발전될것이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 당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당세포가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최후대대가 된다는것은 당세포가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비강화하면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는데 큰 장애를 놓아야 한다. 당세포만 강화하면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이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볼 일이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당세포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조직들의 유기적 결합체이며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은 당세포이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있는 세포가 튼튼하고 작용을 원만히 하여야 사람이 건강한것처럼 당을 구성하고야야 당세포가 견고하고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당이 강해진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것은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선차적

요구이다. 당대렬이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되지 못한 당은 오합지졸에 불과하며 그러한 당은 자기의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다.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는 당의 기초조직인 당세포의 강화를 통하여 실현된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우리 당의 말단기초조직이다. 당원들은 직무와 경력, 품위와 연회에 관계없이 누구나 당세포에 소속되어 당생활을 한다. 당원들은 조직사상생활을 통하여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으로 무장하고 당과 조국,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신병화하며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을 지닌 참다운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왔기 때문이다. 모든 당세포들을에서 혁명적수령관을 기초한 당생활기능을 철저히 세워 당원들을 역세게 키워내야 할 때 우리 당은 그 어떤 천지조공에서도 그럭저럭 않는 당으로 거듭나야 강화발전될것이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 당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당세포가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최후대대가 된다는것은 당세포가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비강화하면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는데 큰 장애를 놓아야 한다. 당세포만 강화하면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이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볼 일이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당세포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조직들의 유기적 결합체이며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은 당세포이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있는 세포가 튼튼하고 작용을 원만히 하여야 사람이 건강한것처럼 당을 구성하고야야 당세포가 견고하고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당이 강해진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것은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선차적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세포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지면 세보시대사업의 책임성과 역할의 미미한 모습들을 어디서나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당세포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조직들의 유기적 결합체이며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은 당세포이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있는 세포가 튼튼하고 작용을 원만히 하여야 사람이 건강한것처럼 당을 구성하고야야 당세포가 견고하고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당이 강해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당세포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조직들의 유기적 결합체이며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은 당세포이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있는 세포가 튼튼하고 작용을 원만히 하여야 사람이 건강한것처럼 당을 구성하고야야 당세포가 견고하고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당이 강해진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대오의 기수, 집단의 어머니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세포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지면 세보시대사업의 책임성과 역할의 미미한 모습들을 어디서나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당세포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조직들의 유기적 결합체이며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은 당세포이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있는 세포가 튼튼하고 작용을 원만히 하여야 사람이 건강한것처럼 당을 구성하고야야 당세포가 견고하고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당이 강해진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세포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지면 세보시대사업의 책임성과 역할의 미미한 모습들을 어디서나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당세포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조직들의 유기적 결합체이며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은 당세포이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있는 세포가 튼튼하고 작용을 원만히 하여야 사람이 건강한것처럼 당을 구성하고야야 당세포가 견고하고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당이 강해진다.

당원들의 시가의 본과 초로 엮이지 않았다

### 2. 8 직동청년단광 9쟁 끝진 3소대당세포 사업에서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시대의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산지대중을 혁신으로 불리워가는 정치사업을 실시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강화의 기본고리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하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낀다

##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 보여주기사업을 왜 정초에 조직하였는가

#### 현장지휘부일군들의 사업에서

지난 1월 8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는 특이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지휘관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에 주요공사들의 마감 단계마다 여러차례의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된 정초에 진행된 것으로 하여 각 단위 일군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보여주기대상은 무엇

이며 정초부터 어떤 문제들이 취급되었는가. 이번엔 진행된 보여주기사업은 처음부터 각 단위 지휘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공사에서 제일 앞선 회천 9호와 5호, 8호와 6호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이날의 보여주기사업에서는 올해의 태양열까지 전반기 발전소건설장에서 구조물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낸 데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던 것이다. 사실 지난해말부터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민에 현장지휘부에서는 새해공사작전을 위한 협의회를 조직하고 이 목표를 대담하게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일정하게 공사기일이 남아있다는 생각에서부터 늦잠을 편향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었다. 바로 이날의 보여주기사업은 지휘관들의 이런 관점을 바로잡아주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다. 특히 앞으로 해토계획의 일로만 생각하였던 운영기업소건물과 증업원실질발전소, 원림목화

사업들을 정초부터 늦추지 않고 방법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 다리보제작과 설치, 발전기실의 지붕공사 등 겨울철에도 진행할수 있는 작업대상들을 최대한 질적으로 다그쳐 끝낸데 대한 문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3월에 들어서면서 미진된 연제와 발전기실의 공사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문제들이 앞선 단위들의 공사장형을 직접 보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방향에서 전례없이 진지하게 토의되었다.

실제로 회천 9호와 8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설비조립단위와의 긴밀한 연계밑에 겨울철조건에서도 발전기지지터면들의 연마작업과 건물내부자랑을 손색없이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참관자들에게 설비조립에 유리한 조건을 미리 갖추는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앞세워야 할 작업대상들이 어떤것인가를 실물을 통하여 잘 알게 해주었다. 이날 현장지휘부와 각 단위 일군들은 모범적인 단위들을 돌아보면서 겨울철에도 능히 수행할수 있는 작업과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고하고 현저에서 건설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할수 있었다.

대규모로 회천 9호와 5호, 8호발전소를 비롯하여 파 전기생산을 위한 물잡이에 들어가고도 하였다. 이날의 보여주기사업을 계기로 각 단위 지휘관들의 사고관점과 방식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그들은 새해의 모든 공사목표와 작전을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더 높이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세웠으며, 일별, 주별로 세분화하여 실천해나갈수 있다는 신심이 굳어졌다.

일군들의 안목이 보다 넓어지고 능력대원들의 창조적열의가 높아진 가운데 공사 앞선 단위에서는 물론 그렇지 못한 단위들에서도 뒤진 작업대상들을 짧은 기간안에 모두 주저세우려는 투쟁기풍이 적극 발휘되게 되었다. 보여주기사업이 있는 후 여러 건설장에서는 청정중기기공을 위한 공사수행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발전기지지터면들에 대한 연마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져 높은 정밀도의 수행상태를 보장한 조건에서 발전설비가 들어오는 즉시 조립에 착수할수 있는 특중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정초에 특색있게 진행된 이번의 보여주기사업은 뜻깊은 올해에 청천강용사들로 하여금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파괴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공격해나감으로써 완공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뚝뚝이 들어설수 있도록 힘있게 고무충동하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지었다.



- 회천 5호발전소건설장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다리보제치는 연제건설을 마감짓는 중요한 공사이다. 회천 5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황해남도려단에서는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되어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100여개의 육중한 다리보를 성과적으로 운반설치하는 자랑을 떨쳤다.

자동차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리보설치공사까지 더 수행해야 한다. 하다면 어떻게 다른 단위보다 2배이상에 달하는 공사량을 절반품을 들이면서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가. 무엇보다 다리보제작의 합리적인 위치선정에 묘안이 있다. 실제로 우승을 다투는 어느 한 단위에서는 중진방식으로 연제수문동기까지에 다리보들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하니

가까이에서는 하루평균 2~3개의 다리보만 만들고 그나마 중단되는 날이 많았다면 넓은 공지에서는 매일 7개 이상의 제작설치가 기록되었다. 특히 연제주변에 제작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가물막이공사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므로 많은 로력과 자재, 시간을 절약할수 있어 더욱 좋았다. 공간상 제약으로 서로 불편을 주는 현상이 없이 수문기동건설과 다리보제작

작업이 중단없이 되도록 하였다. 다음 우안구간에서 이전처럼 추레에 실려온 육중한 다리보를 하차할 때 7개 이상의 제작설치능력의 기중기차로 단번에 연제우로 끌어올려 즉시 설치하였다. 기중기차에 의한 단번설치방법으로 중진방식을 절반으로 단축, 하루평균 8개의 다리보 운반설치!

합리적인 공목 도입의 위력을 잘 알기에 충분한 자로이다. 가물막이를 다시 하지 않는 조건에서 나머지 좌안구간에서는 단번발파로 물흐름을 우안구간으로 돌려놓는 다음 겨울철의 갈수기와 종전의 수중다리를 효과적으로 용하여 다리보운반설치를 즐기게 다그치었다.

특히 방대한 땅에 달하는 좌안비류부연제의 성토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는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처럼 자기 단위의 특성과 구체적인 공사장형에 맞게 과학적인 작전을 펼치고 넓은 틀을 마스며 대담하게 실천해나간다면 어디에서나 비약의 묘수는 반드시 생기는 법이다.

3분간에서 얻어낸 1.5배의 굴착속도

양시려단 모란봉구역대대에서

많은것을 감축하게 되었다. 그는 야간굴착현황을 자세히 알아보고있다. 대대정치지도원 정영근동무와 돌격대원들인 최철영, 리철송동무들이 밤새 착안작업을 하였는데 전날보다 굴착구멍을 8개 더 뚫었다. 암실상태도 종전과 같고 공기압도 여전히였는데 다만 작업마감에 천공깊이에 따르는 정대길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정일이 다 닳아 새 정일을 같이 끼웠을뿐이었다. 굴착과정에 늘 있는 레서로 인일이었지만 이곳 지휘관들은 무심히 스쳐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즉시 정일상태에 따르는 착안설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천공깊이에 따르는 정대길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천공속도를 훨씬 높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하루별 파구멍개수가 30여개나 더 늘어나고 버려처리량이 그전에 비해 1.5배이상 대량 줄어들었다. 연제 천실속에서 새로운 비약의 방도를 탐구하며 하나하나 앞설것을 실현해나가는 이곳 대대지휘관들의 경험과 일은 본래는 참으로 본받을만하다.

## 비약의 묘수

###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의 사업에서

인구간에서 다리보제작과 설치를 끝낸 다음에는 우안구간에서의 다리보제작에 필요한 새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부득불 이미 해제했던 구간에 로력과 설비를 집중하여 가물막이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선 대화물차에 의한 자재의 다량운반과 철근 및 휘토조립을 신속하게 진행할수 있어 아주 유리하였다. 수중조성과 공정별달물림에 따라 수문기동

을 빠른 속도로 동시에 줄기차게 내밀수 있었으며 훨씬 적은 품을 들이면서 짧은 기간에 10개 이상의 수문기동건설과 100여개의 각종 다리보제작과제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할수 있었다.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는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처럼 자기 단위의 특성과 구체적인 공사장형에 맞게 과학적인 작전을 펼치고 넓은 틀을 마스며 대담하게 실천해나간다면 어디에서나 비약의 묘수는 반드시 생기는 법이다.

방수로굴착현황에서 이곳 대대 단연 1등의 영예를 정취하게 된 과정은 구체적으로 보자. 처음 대대에서는 하루 60~70개의 발파구멍을 뚫었다. 어느날 야간에 진행한 발파현황을 돌아보면 대대장 김기순동무는 버려처리량이 이전보다

거위있는 착안기로 천공해보내 한구멍을 뚫는데 7~10분이 걸렸다. 다음 천공깊이에 따르는 정대길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새 정일을 끼운 착안기를 가동시킨 후 그 시간이 4~6분으로 단축되었다. 평균 3분간 앞당겨졌던 것이다. 결코 작은 시간이지 아니었다. 하루에 60~70개의 구멍을 뚫는다고 볼 때 천공깊이에 따르는 정대길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새 정일을 정상적으로 같이 끼우면 3시간이상의 예비가 나온다. 그만큼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매년 새 정일을 같이 끼우면서 작업할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그마한 가

능성도 놓치지 않았다. 김기순, 정영근동무들은 러던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민에 현장에 정일을 갈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놓고 착안공을 30분에 한번씩 정일을 갈아 새겨 처리할 각도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재도화하였다.

특히 천공깊이에 따르는 정대길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천공속도를 훨씬 높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하루별 파구멍개수가 30여개나 더 늘어나고 버려처리량이 그전에 비해 1.5배이상 대량 줄어들었다. 연제 천실속에서 새로운 비약의 방도를 탐구하며 하나하나 앞설것을 실현해나가는 이곳 대대지휘관들의 경험과 일은 본래는 참으로 본받을만하다.

## 청천강전역에 타버리는 창조와 혁신의 불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제24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 축전을 보내였다

아디스 아베바

**제24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 앞**

나는 모든 아프리카나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속에 아디스 아베바에서 제24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열리는것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책동에 대처하여 대륙내부사이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아프리카동맹의 발과 노력들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아프리카동맹 및 성원국들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단계에서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는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아프리카의 부흥과 지속적인 발전,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수뇌자회의의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4(2015)년 1월 27일 평양

창조와 혁신의 불길

평안북도협 배수리와 어구준비에 박차를

를 다그치면서 어구수리를 실속있게 하고있다. 철산수산업동조합의 일군들과 농업인들도 첫 출력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배수리와 어구준비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이밖에도 보산씨조개생산사업소를 비롯한 위원회하의 수산업동조합에서도 조개양식에 힘을 넣고있다.

평안북도협 배수리와 어구준비에 박차를

를 다그치면서 어구수리를 실속있게 하고있다. 철산수산업동조합의 일군들과 농업인들도 첫 출력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배수리와 어구준비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이밖에도 보산씨조개생산사업소를 비롯한 위원회하의 수산업동조합에서도 조개양식에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승고한 후대사랑 넘치는 강산, 따뜻한 정이 넘치는 우리 사회

어버이사랑속에 이 땅의 미래는 더욱 밝다

평양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의 한해생활을 돌이켜보며

우리 사는 이 시대에는 참으로 희한한 변이 많다. 지난해에 일어난 기념비적창조물들만 놓고봐도 그렇다. 위대한 평양소년단악영소, 위성과학자후배자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후배양소, 평양육아원, 애육원... 남들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창조물들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지 아닐수 없다. 지난 한해 동안에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을 우리는 일어난 평양육아원, 애육원에서 보았다. 위대한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것은 자기자신과 자기 세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임니다.»

뜨거운 사랑과 정을 부어주는 그들을 보고 원아들은 어머니라고 스투럼없이 부른다. 허나 원아들의 가슴속 한구석에는 무엇으로써도 메울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 친부모의 정이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라고 뼈고싶은 마음이었다. 그리움이 있었다. 한껏 뛰놀다가도 문득 어머니를 잡고 거리로 오가는 제때에 아이들을 볼 때면 가슴이 구석 구석 아파서 되살아나 슬피서서서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던 원아들, 때로 새로 들어온 처녀 교양원이 웃으며 어서 오렴! 하고 부르면서 낮이 설이 술술 뒤죽음질하던 그들이었다. 그러던 아이들이 달라졌다. 한해사이엔 활발해지고 당돌해졌으며 씩씩해졌다. 어떻게? 아버지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으면서도 원아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언제든 오실가, 언제든 돌아올가 하고. 그 고향에 안기고 싶었고 응성도 부르고 싶었다. 그런 원아들의 소원이 풀린 날이었다. 지난해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아오셨던 것이다. 한해가 웃으며 자기들을 한눈에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부르며 원아들은 순간에 친어머니의 정을 느꼈고 아버지! 하고 목청껏

지금 당에서 대동강변에 현대적인 육아원, 애육원을 일떠세우고있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다음해에는 새로 건설된 애육원에서 6.1절을 쇠게 될것이라고, 그때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시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셨다.» «아버지원수님께서 내 등을 두드려주셨다.» «그날부턴 아버지는 새 집이 보고싶어 손가락을 꼬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에는 내 두 손가락을 동동 굴렀다. 궁전같은 새 집에 들어서서 어머니를 내뿜는 아이들을 누가 지어주시니? 하고 묻는 교양원의 몸에는 포방포방한 목소리로 합창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그 집에선 날마다 웃음소리가 높았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랑의 궁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을 비추어 있어는 과일과 당과류, 새옷들을 가슴가득 받아안고 아이들이 날마다 웃음꽃을 피웠다. 바로 그 행복의 집에서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세대의 양육자를 원아들과 함께 보내주시었다. 또 오셨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어 새해의 첫날에 자기들의 집을 찾아오신 아버지원수님을 부르며 원아들이 좋아하고 웃기만 했던가. 아직은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을 다는 모르는 철부지들이었던건나 국제아동절에도, 새해의 첫날에도 자기들의 밝은

일군들의 걱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속에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에는 내 두 손가락을 동동 굴렀다. 궁전같은 새 집에 들어서서 어머니를 내뿜는 아이들을 누가 지어주시니? 하고 묻는 교양원의 몸에는 포방포방한 목소리로 합창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그 집에선 날마다 웃음소리가 높았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랑의 궁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을 비추어 있어는 과일과 당과류, 새옷들을 가슴가득 받아안고 아이들이 날마다 웃음꽃을 피웠다. 바로 그 행복의 집에서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세대의 양육자를 원아들과 함께 보내주시었다. 또 오셨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어 새해의 첫날에 자기들의 집을 찾아오신 아버지원수님을 부르며 원아들이 좋아하고 웃기만 했던가. 아직은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을 다는 모르는 철부지들이었던건나 국제아동절에도, 새해의 첫날에도 자기들의 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속에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에는 내 두 손가락을 동동 굴렀다. 궁전같은 새 집에 들어서서 어머니를 내뿜는 아이들을 누가 지어주시니? 하고 묻는 교양원의 몸에는 포방포방한 목소리로 합창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그 집에선 날마다 웃음소리가 높았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랑의 궁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을 비추어 있어는 과일과 당과류, 새옷들을 가슴가득 받아안고 아이들이 날마다 웃음꽃을 피웠다. 바로 그 행복의 집에서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세대의 양육자를 원아들과 함께 보내주시었다. 또 오셨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어 새해의 첫날에 자기들의 집을 찾아오신 아버지원수님을 부르며 원아들이 좋아하고 웃기만 했던가. 아직은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을 다는 모르는 철부지들이었던건나 국제아동절에도, 새해의 첫날에도 자기들의 밝은

우리 원수님과 원아들

새해 첫날 원아들은 저마다 달려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파고들며 «아버지! 원수님!» 하고 부르면서 새 옷을 입기 위해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아이들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을 비추어 있어는 과일과 당과류, 새옷들을 가슴가득 받아안고 아이들이 날마다 웃음꽃을 피웠다. 바로 그 행복의 집에서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세대의 양육자를 원아들과 함께 보내주시었다. 또 오셨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어 새해의 첫날에 자기들의 집을 찾아오신 아버지원수님을 부르며 원아들이 좋아하고 웃기만 했던가. 아직은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을 다는 모르는 철부지들이었던건나 국제아동절에도, 새해의 첫날에도 자기들의 밝은

다심한 사람

이불과 옷은 며칠에 한번 세탁해주는가, 내의는 빨아서 다려주고있는가 등 자기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까지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부르며 이 세상 천만부모도 따르지 못할 다심한 아버지사랑에 그만 머리가 숙여짐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아버지

맛도 먹는다는 자랑 등 원아들의 시바람 날아가기를 들어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에 아이들이 하나같이 보통 보듯하고 원해졌으며 씩씩해졌다고, 모두 뽕뽕하고 애를 먹으며 아버지원수님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꿈이아기며 물고기, 고기, 사랑, 파자, 빵, 사과, 복숭아,

사회의 공전에 꽃피는 1월이야기

위대한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밝고 명량한 모습에 비로 우리들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혁명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찾는 곳

평양육아원, 애육원으로는 뜻깊은 새해 첫날 아침부터 사람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로동당시대의 복판은 귀동자, 귀동자들이 보고싶어 아, 양력설을 쇠는 그들을 축하해주고싶어 맛있는 빵이파자, 고운 옷과 장난감들을 한아름씩 안고 수많은 아이, 엄마들이 줄지어 원아들을 찾아왔다.

내 친구, 내 동생

어느 한 전람관에서 일하고 있는 원수님께서는 양력설날에 외출할때부터 뜻밖의 《시달림》을 받게 되었다. 평양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이 명절을 즐겁게 쇠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고있던 딸 주유이가 느닷없이 원아들을 찾아가보자고 졸라댄 것이다. 모란봉구역의 어느 한 유치원에 다니는 주유이는 원아들이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속에 부모있는 아이들 못지않게 행복하고 씩씩하게 자란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날부터 원아들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엄마가 또 왔어요»

어느 한 위생방역기관에 다니는 한혜영동무와 그 자매들에게는 최근후에 진행하는 류타른 일파가 있었다. 하루가 멀다하게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아 원아들의 생활을 친엄마의 정으로 살뜰히 살펴보려고하고있었다. 원아들을 보진생각하지요 구에 맞게 키우기 위해 애쓰는 보육원들과 교양원들의 일손을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원아들의 학습도 지도해주는 그들을 원아들은 무척 따르고있었다. 원아들의 친부모, 친혈육이 되어 그들을 따듯이 돌봐주고 있는 사람들이는 그들만이 아니라, 모란봉구역 민홍동에서 즐겁게 보낸 어린이들이 어찌 주유이와 원자뿐이라고만 하랴.

감탄의 목소리

평양육아원, 애육원으로는 평양의 벗들도 수많은 찾아오고있다. 그들모두는 이곳 원아들이 세상에서 부럽지 않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있고, 애육원을 찾아오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과 건강한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여기에 유럽의 한 인사가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고 남긴 이야기가 있다. «놀랄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조선의 평양에 아이들이 위한 한 유치원, 애육원이 훌륭하게 일떠서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모든것이 이처럼

투철한 반세계주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의 진지를 철벽으로!



철천지원수 미제에 대한 치사는 분노와 복수의 일념으로 가슴 불레우고있다. -삼천군계급교양관에서-

반미교양을 실속있게

덕성관관에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탄부들속에서 반미계급교양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탄부초급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 탄부들에게 우리 인민들에게 해야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죄악에 찬탄사와 오늘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원수들의 침략적본성에 대하여 사실자료를 가지고 알려줌으로써 탄부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또한 모든 당원들과 탄부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박물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반미

위대한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 품도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세계를 정지사상적으로, 정신도덕적으로 압도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1월이다. 강산에 눈이 쌓이고 때없이 찬바람이 불어온다. 하지만 이 땅에 보금자리편 사람들과 가슴마다 따뜻한 정이 흐르고 미덕의 향기 넘친다. 어제는 조국의 집을 조공이라 도 멀어지고싶은 정정을 안고 부모없는 수심많은 아이들에게 밝은 웃음과 기쁨만을 주기 위해 뜨거운 사랑과 지극한 정성, 남모르는 땀을 바치는 이천평의 선동원 박연화동무의 소행이 만 사람의 심금을 울리거나 또 열 마진에는 한 차례의 잃었던 열 줄을 되찾아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온 한 보견원들의 미덕이 전 세계 나라의 방방곡곡을 들끓게 하고있다. 오늘날은 또 20년간 55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두일평의 평범한 부부의 소행이 사람들의 가슴을 한없이 격동시키고있다. 날마다나. 사랑과 정에 대한 아름다움은 이야기가 되어나가는 곳, 사람들이모두가 이 땅에 눈바람 몰아쳐도 포근한 그 품속에 추운줄 모른다노래하는 삶의 보금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내 조국, 사회주의 내 나라이다. 이처럼 뜨거운 사랑과 정이 흐르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대하여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른 «조선특유의 사회현상»이라는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활동이 아름다운 삶으로 평가되고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더없는 공지로 생각하는것이 바로 조선인민의 정신적특질이다.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 일하며 태어나서부터 사회의 관심속에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죄가 그칠새 없고 과열의 나락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고있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사회이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지난해에만도 사람들은 놀래우는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특히 도처에서 총기류범범이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을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어느 한 유공장에서 일어난 총기류범범으로 15명이 부상당하고 또 어느 살림집에서는 중년부부가 다들잡힌 한판 끝에 안해가 자기 남편을 총으로 쏘아 무참히 살해하는 참상이 벌어졌다. 그뿐만아,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 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한심하다. 몇해전 어느 한 국제기구가 건강과 교육, 경제활동, 정치활동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여성들의 지위실태를 조사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남조선이 남녀불평등이 가장 심한 곳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여성들은 여성이라 리유로 쿠드의 사회적차별과 멸시속에 삶을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남조선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그들의 절반밖에 안되는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고있다.

날로 꽃피어나는 미덕, 만연되는 악덕

인간의 권리를 지키려는 조선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사회의 번영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것을 호소하는 목소리만 크게 울려나올뿐 사회제도에 대한 울분과 저주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에는 치료비, 집값, 세금 등 분노할 조건이 없기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어두운 그늘을 던지는 요소들이 조선에는 없으며 반대로 따사로온 햇빛과 같은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되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라는 구호가 사회의 모든 활동에 구현되고있는 조선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실상을 보기로 하자. 인제에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살인범은 뜻밖에도 피해자인 7살 난 어린이의 친어머니와 이복아버지였다. 어린이는 죽기 전에 부모로부터 무려 1시간나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어린이가 죽은 후 그의 몸을 살펴보니 팔과 가슴, 다리에는 온통 멍이 들어있었고 잔뜩은 많은 화상자국이 있는 등 성한 곳이란 없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죄가 그칠새 없고 과열의 나락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고있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사회이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지난해에만도 사람들은 놀래우는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특히 도처에서 총기류범범이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을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어느 한 유공장에서 일어난 총기류범범으로 15명이 부상당하고 또 어느 살림집에서는 중년부부가 다들잡힌 한판 끝에 안해가 자기 남편을 총으로 쏘아 무참히 살해하는 참상이 벌어졌다. 그뿐만아,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 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한심하다. 몇해전 어느 한 국제기구가 건강과 교육, 경제활동, 정치활동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여성들의 지위실태를 조사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남조선이 남녀불평등이 가장 심한 곳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여성들은 여성이라 리유로 쿠드의 사회적차별과 멸시속에 삶을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남조선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그들의 절반밖에 안되는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고있다.

현경철

# 대결의 빚장을 벗겨야 협력의 문이 열린다

구렁이를 팔 때에는 자기의 키에 맞추어 파라는 말이 있다. 생각없이 깊이 파면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으로 될 수 있음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지금 그 무슨 《민족적책임》, 《최우선과제》나 하며 《리산가족》상봉문제를 들고나오는 남조선당국의 처사를 그에 비유할 수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2010년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모략단인 《천인》조직을 꾸림으로써 《5. 24 조처》라는 것을 발동시킴으로써 북남사이의 대화와 교류, 협력의 길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문체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위한 《5. 24 조처》가 남조선당국이 운영하는 《리산가족》상봉까지 말아먹고있었다는 데 있다.

말썽거리려 제거할 책임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자기들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필적없이 우리를 길고래고래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리산가족》문제의 근원적해결을 위해 북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떠든것도 바로 그렇다. 남조선당국이 제 할바는 하지 않고 남을 때려하며 현실을 외면하는데 대해 실로 격분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며 홀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책임을 모면하려 해도 그것은 통할 수 없다.

홀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릋장이다.

외계가 강요한 나라의 분열로 우리 민족이 겪는 가장 큰 불행의 하나는 생리병을 당한 혈육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별 생사조차 모르고있는 가슴아픈 비극이다. 홀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관계개선을 이룩하자면 홀이진 가족, 친척상봉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 하기에 우리 공화국은 7. 4 공동성명과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을 리행해나가는 길에서 출

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의 그 의지와 릋장은 역사적인 6. 15 공동선언 제3항과 10. 4 선언 제7항에 그대로 명문화되었다. 6. 15 공동선언발효이후 2007년말까지 평양과 서울, 금강산에서 진행된 홀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회수는 무려 16차례에 달했다. 그 기간 7차례의 화상상봉도 있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며 대결을 선전한 리명박《정권》의 출현이후에도 홀이진 가족, 친척상봉의 성사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기 리쥘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 속에서도 홀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는 분열의 비극과 고통을 어떻게 하나 가시리. 갈라졌던 부모와 자식들이 이제는 백발이 된 머리를 서로 맞대고 부둥켜안는 그 모습은 정녕 눈물없는 것이 없는것이였다. 분열의 아픔, 상봉의 기쁨이 오가는 금강산의 흰눈덮인 산발에도 통일아 이어서 오르고 목놓아 제치는듯싶었다. 홀이진 가족, 친척상봉의 길에 아로새겨진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감히 누가 시비걸고 끊고단단 말인가.

갈라진 민족의 고통을 북남대결에 악용하며 홀이진 가족, 친척상봉을 가로막은 장본인은 남조선의 보수《정권》들이다.

2007년 11월에 열린 제9차 북남정상회담에서는 우리의 주동적인 제의와 노력에 의해 해마다 북과 남이 각각 400명정도의 홀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 등이 합의되었었다. 하지만 그 다음해에 집권한 리명박정권은 《이전 《정권》이 합의한것을 새 《정

권》이 리행할 의무가 없다.》느니, 《인도주의 3원칙》이니 하며 그것을 파탄시켰다.

더우기 리명박역도 《천인》조직을 발동시킨후 《5. 24 조처》라는것을 꾸며냄으로써 북남적십자회담동료마저 차단하고 인도주의협력을 비롯한 북남사이의 교류협력을 모조리 가로막았다. 이로 하여 홀이진 가족, 친척상봉도 거의 이루어질수 없었다.

《5. 24 조처》가 홀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북남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차단하고있는가를 알 수 있다. 《5. 24 조처》의 골자는 한민족의 인연, 한의 문화와 한민족의 자존감을 홀이진 가족, 친척상봉이 어떻게 진행될수 있었는가, 남조선 각계 《5. 24 조처》에 대해 《애국가》를 비롯하여 반민적인 자해조치, 《리산가족》들의 반민을 결단한 리명박정권이라고 단언한것은 당연하다.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사이에서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수 없게 되어있는것은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운운하며 《5. 24 조처》의 해제를 거부하고있다.

이 자체가 심각한 모순이다. 제가 매물은 제가 골짜기 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제논은 북남교류와 인도주의협력이 어디에 차단봉을 두는지, 홀이진 가족, 친척상봉을 할수 없게 만들어 놓고 《리산가족》들을 말아먹는것은 어찌 성실이다. 그들이 《리산가족》문제의 《최우선해결》과 그 누구의 《열린 마음》에

대해 떠드는것은 《5. 24 조처》를 홀이진 가족, 친척상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그들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술책일뿐이다. 북남사이의 모든 인적, 물적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5. 24 조처》를 지속시키는 현 남조선당국은 홀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의 관련하여 유망한 책임을 능가 할것이다.

대결의 빚장을 벗겨야 협력의 문이 열린다.

남조선당국이 인도주의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리산가족》문제를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5. 24 조처》를 해제하는 용단을 내리야 한다.

《5. 24 조처》와 같은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실사 홀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할 수 없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앞수레가 넘어진것은 뒤수레의 교훈이라고 했다. 신행《정권》이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조작한 《5. 24 조처》를 비롯한 장애물들을 계속 불고있는것은 스스로 자기 손발을 얽어매는 어리석은 처사가 아니겠는가.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북남사이의 《새로운 판례설정》의 성공은 《5. 24 조처》의 해제라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의 통일, 외교, 안보전문가들속에서도 《5. 24 조처》의 전면적인 철회로 북남교류를 증대시키는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동국대학교의 한 교수는 《북과의 새로운 판례설정을 위해서는 《5. 24 조처》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홀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현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고 그민을 기만하는 잔악을 버리지 말고 《5. 24 조처》를 해제하는 실천행동에 나서야 한다.

봄을 놓치면 가을을 잃는 법이다.

리 호 진

# 애국의 의지가 맥박치는 역사적인 호소

민족분열의 비극의 역사를 이어가 끝장낼 애국의 의지와 결의의지가 맥박치는 경이로운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선언사는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료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해방 일흔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는 경이로운 현수님의 선언사는 민족의 앞길을 환히 밝힌 등대라고 하면서 절실히 우리에게 대한 한없는 경모심을 금치 못하고있다.

《국민일보》, 《련향뉴스》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경이로운 현수님의 선언사의 신념과 의지를 이목하러는 거리의 지향은 절대로 막을수 없다. 라는 글이 실려 사람들의 심금을 크게 울렸다.

서울의 한 통일선언사는 역사적인 선언사를 하시는 경이로운 현수님의 사জন현을 보면서 《여기에 넘치고 넘치지 않겠는가》라는 글이 실려 그의 영상을 우러르면서 끝없이 매혹되고있다. 태양민족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간직하였다. 태양의 어버이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의 햇빛이 삼천리를 비치고 경이로운 김정은원수님의 영명한 영도자가 이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라고 격정을 터뜨렸다.

남조선의 통일학자로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김정은장군님 그대로 승화된 통일정령과 확고한 애국의 의지를 한몸에 안으시는 광복의

려 제2의 6. 15시대를 안아오는애국적 이바지할것이라고 밝혔다.

남조선의 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언사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조국통일대위 박시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다고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명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 용단을 지니시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그이의 애국애족적인 품모에 정말 감동을 금할수 없다.》

남조선의 한 야당인사도 경이로운 현수님의 선언사에 대해 북남대결과 통일의 전환적기회를 마련해주고있다고 높이 격찬하였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민족분열의 창창한 태일도 반드시 밝아온다는것이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으로 굳게 각인된 신념이다. 하기에 그들은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이로운 김정은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여기에 넘치고 넘치지 않겠는가》라는 글이 실려 그의 영상을 우러르면서 끝없이 매혹되고있다. 태양민족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간직하였다. 태양의 어버이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의 햇빛이 삼천리를 비치고 경이로운 김정은원수님의 영명한 영도자가 이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라고 격정을 터뜨렸다.

남조선의 통일학자로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김정은장군님 그대로 승화된 통일정령과 확고한 애국의 의지를 한몸에 안으시는 광복의

도량과 자애로운 덕망을 지닌 조국통일과 민족단합의 구상이 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제 1위 위장에 걸린 신년사에서 장장 70장에 걸친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다고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명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 용단을 지니시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그이의 애국애족적인 품모에 정말 감동을 금할수 없다.》

남조선의 한 야당인사도 경이로운 현수님의 선언사에 대해 북남대결과 통일의 전환적기회를 마련해주고있다고 높이 격찬하였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민족분열의 창창한 태일도 반드시 밝아온다는것이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으로 굳게 각인된 신념이다. 하기에 그들은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이로운 김정은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여기에 넘치고 넘치지 않겠는가》라는 글이 실려 그의 영상을 우러르면서 끝없이 매혹되고있다. 태양민족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간직하였다. 태양의 어버이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의 햇빛이 삼천리를 비치고 경이로운 김정은원수님의 영명한 영도자가 이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라고 격정을 터뜨렸다.

남조선의 통일학자로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김정은장군님 그대로 승화된 통일정령과 확고한 애국의 의지를 한몸에 안으시는 광복의

# 황당무계한 조선사이버공격설

미국은 지금도 《쓰니 픽처스》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우려하고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집요하게 류포시키며 우리에게 대한 거짓소동에 미처남아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하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마련이다.

얼마전 미국정보보안업체 맥아피의 창업자인 존 맥아피가 《쓰니 픽처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조신의 소행이 아니라는것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그 사이버공격은 미국의 자유주의성향해커들의 소행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해커들이 누구인지 알고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을것이며 조선소행설을 제기한 미연방수사국을 뿔했다고 확실하게 말했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를 통해 《쓰니 픽처스》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미국내에서 발생한 미국자제의 문제이리라는것이 명확히 확정되었다.

공격자들은 미국내에 있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손금보듯이 잘 알고 수사에서는 제노라 하는 미연방수사국이 개별적인 한 전문가보다도 못한 영리없는 결과를 내놓았는데는 민중이 속대 올라간것 우물거리는 그 《드롭은 행위》를 수조도 명파타에 치박은 어리석은 행위로 된다. 미연방수사국이 《명성》을 날린다는것은 현실이 보여주었다는것과 우물거리는 현실에서 악명을 떨친다는것과도 다르지 않다.

미국은 악의 소굴인 미연방수사국의 허위와 남조도 일관된 수사결과를 《신비》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모욕하고 우리에게 대한 압박소동에 환장이 되어 미처남아고 있지않자제가 악의 제국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세계에 릋해보였다.

혹시 오바마정권이나 국회내의 보수세력들이 미연방수사국에 조선사이버공격설이라는 남조품을 인위적으로 꾸며내도록 강요했는지도 모른다. 제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영상을 훼손시키고 그런 나라들을 압박하여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계와 정보 및 수사기관들이 협동하여 각종 구실을 다 만들어내는것이 미국일진대

조선사이버공격설같은것을 조작해내려는것은 식은죽먹기일것이다.

미중양정부국이 이라크의 대량살륙무기 개발을 꾸며내고 미국의 정객들이 그 날것을 유엔무대에까지 들고가 이라크침략의 구실을 마련한것은 결코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조선사이버공격설은 모략과 음모적방법으로 주권국가들에 대한 압박과 침략의 환경을 조성하는 미국의 악랄하고 총칼의 본성이 조공도 달리지 않았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미국이 이번에도 꾸며낸 조선사이버공격설은 너무도 유치하고 치졸한것이다. 그래서 그 남조품의 허황성서 얼마 못 가서 인차 드러나겠이다.

《쓰니 픽처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제 해를 때 미국은 애초에 사이버방해를 우리 나라로 정하고 달라붙었다. 우리 공화국과 오래동안 대결해오면서 패배의 쓴맛을 보며 팔랑판 먹더니 조선의심중이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병으로 깊어져 갔을것이다.

미연방수사국은 얼마동안 부각소동을 피우며 정적 조선사이버공격설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문제는 증거이다. 범인을 끝까지 잡는다는 첫째로 내놓아야 할것이 바로 증거이다.

국내외적으로 조선사이버공격설을 위반할만한 증거를 내놓을데 대한 요구가 높아가자 미연방수사국은 처음에는 《메인한 정보자료이니 공개할수 없다.》고 변명하였다. 그후 내놓았다는것이 《쓰니 픽처스》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리용된 코드와 지난 시기 조선이 사이버공격을 할 때 사용한 코드와 유사하기때문이라는 황당한 설명뿐이었다.

그런 설명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할뿐이거 명백한 증거도 될수 없는것이다.

미국내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 엉터리없는 설명을 듣고 코웃음을 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전문가들은 그러한 코드는 이미 오래전에 리용된것이며 세계의 어느 해커도 능히 리용할수 있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미국

에서 사이버안전회사를 운영하고있는 켈글린드지는 《우리가 수정한 기타 증거들을 보면 조선이 《쓰니 픽처스》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미연방수사국의 수사결과를 전면부정해내었다.

미연방수사국을 비롯한 수사 및 정보기관들은 어디에도 통할수 없고 누구도 남들 시킬수 없는 황당무계한 조선사이버공격설을 꾸며내고 수차례의 오도 망신을 당하고있는데 대해 극도로 격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남조품을 조작하는것으로 체면이나 겨우 세우는 엉터리 수사 및 정보기관들에 놀아나 존엄없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떠드는 오욕아마치 얼굴을 홍당무우처럼 시뻘겋게 붉어야 한다.

그런 수사 및 정보기관들을 믿고 신디미 같이 영인 국내의 증대보안사건들은 어떻게 제대로 다 들추어내고 세계에 보이는 모든 증대사건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온전하게 평가를 내리겠는가. 오바마정권의 남은 2년간의 앞길은 참으로 암울하며 그 처지 또한 가늠하기 지경이다.

《쓰니 픽처스》에 대한 사이버공격사건을 공중으로 조사하는 우리의 제안은 미국이 그 그토록 반대하였던것은 충분히 리해가 간다. 그렇게 하면 조선사이버공격설이 모략극이라는것이 순순히 드러날것이며 그렇다.

오바마가 《대통령행담》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 강하게 들어맨다고 하여 우리는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온갖 위협공격과 압박, 제재를 받으며 살아왔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 할바를 다하였다. 미국이 압박과 제재에 매달릴수록 우리 나라는 더 강하고 정치군사사국으로 솟아올라 그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었다.

우리는 미국이 대조전적대시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수록 그를 저수서버리기 위한 단호한 대응책들을 련속 취해나갈것이다.

# 겨레의 강렬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연합회의 호소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

강추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제1부위원장 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제2부위원장은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진보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결정의 부당성을 폭로하였다.

성명은 대법원이 통 통합정보당수 《국회》 의원 리서기에 대한 공판에서 《지하혁명조직》이란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발표

이 기어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통일애국의 호소라고 간지적하였다. 우리민중리커리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강렬한 지향과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한 연합회의 호소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

올해는 6. 15공동선언발효 15주년과 조국해방 70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부위원장 담화 발표

민족분열 70년의 비극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는 열의는 조선반도에서 진행위업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체제대결을 중지하는데 있다.

남조선당국은 북침을 노린 팽만적인 전쟁포악과 반공화국당살책동, 무모한 적대행위에 팽만하고있는 미국상전과 결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족공공의 통일대강인 6. 15공동선언, 10. 4선언과 그가 낳은 귀중한 성과를 더는 짓밟지 말며 민주주의적력들에 대한 파쇼관압을 당장 그

# 남조선 각계가 진보세력말살에 항의

내란음모혐의가 없다고 밝힌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정보당해산의 리유를 들고나왔던 것들이 모두 무근거하며 해산결정을 명백한 정치적도에 의한 판결이었다는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대법원이 리서기에 대해 내란음모혐의가 없다고 하면서도 내란음모가 있었다느니 께터 하며 징역형을 선고한것은 리권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것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판결과 관련하여 아시아 인권위원회가 남조선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

# 이슬람교도폭행에 항의하여 집회와 시위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25일 프랑스신문사의 이슬람교도폭행위에 항의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이슬람교에 언질을 풍자하는 만화를 썬어낸 신문사의 언당지 못한 처사를 규탄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시위들은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한편 이란의 수도에서 23일 프랑스의 샤를리 에브르드신문사의 이슬람교도폭행위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3년간의 가뭄철했던 조국

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의 역사적인 승리로 결속되었다. 정전협정의 체결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할수 있는 첫걸음으로 되었으며 전쟁의 종결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뻔 했던 국제정세가 완화되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전쟁에서의 비참한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지 못한 미국은 정전협정에 맞서던 인구가 마르기도 전에 정전체제를 파괴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길로 나섰었다. 전쟁을 계속하면서 쌍방사이에서 맺은 정전협정은 누구도 어길수 없는 국제법적문건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물로 갈라놓고 아시아의 세계제야망을 꿈꾸던 미국에 있어서 우리 겨레의 통일이나 정전협정의 리해같은것은 안중에 들어가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위반, 유린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미군주둔을 영구화하기 위해 파렴치하게 책동하였다.

미국은 정전후 얼마 안되어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델레스를 내세워 남조선에 미군을 영원히 주둔시킬것과 만일 필요할 때에는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또다시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할것을 목적으로 남조선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북과 남사이의 평화적통일을

# 북남관계개선 의 앞길을 막아나선 미국의 죄악(3)

정전협정의 파기와 남조선의 군사기지화책동

방해하며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꾸며낸 범죄적《조약》이었다.

미국이 서둘러 이 《조약》을 체결한것은 전후에 응당 제기될 일체의 외국군대배치에 대한 정당할한 요구를 거부하고 자들의 강점을 계속 고착화하여 《법률적기초》를 마련하며 자들의 만일 공화국군대배치에 남조선의 철거 없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정전협정의 리행을 로골적으로 전면거부해냈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3개월 만에 한반도의 정치체제를 소집하여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반도의 평화적해결 등을 협의할 양키 유정된 정전협정 제4조 60항이 첫 회생물로 되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날 델레스는 《우리는 90일이 경과한 후 정치회의로써 퇴장할것》이라고 로골적으로 선언하였으므로 실지 미국측은 그해 10월 공화국정부의 제의에 의하여 판문점에서 열린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에서 인위적인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북과 남사이의 평화적통일을

# 당국의 진보정당강제해산결정을 배격하는 남조선인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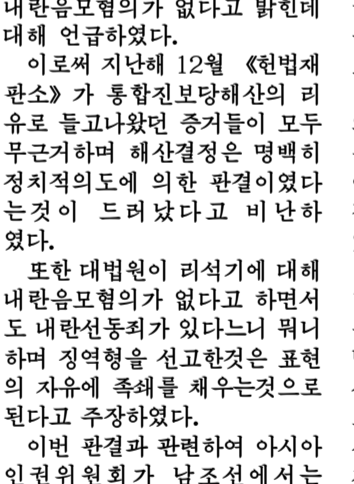
당국의 진보정당강제해산결정을 배격하는 남조선인민들

# 법적근거가 없는 비례대표 지역의원비밀법률유죄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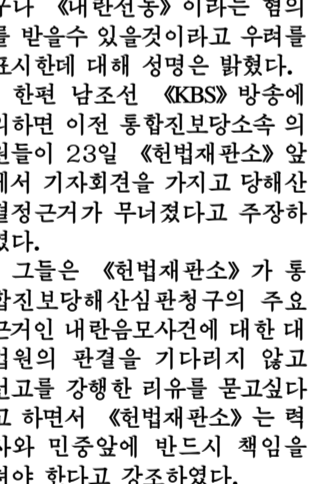
법적근거가 없는 비례대표 지역의원비밀법률유죄판결

# 법적근거가 없는 비례대표 지역의원비밀법률유죄판결



법적근거가 없는 비례대표 지역의원비밀법률유죄판결

# 법적근거가 없는 비례대표 지역의원비밀법률유죄판결



법적근거가 없는 비례대표 지역의원비밀법률유죄판결



베네수엘라의 폭포